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 (1)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당부도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스스로 너무하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다그쳤습니다.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해 주셨습니다.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을 예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의 능력과 선의를 믿는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느립니다.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지 않으면 시동마저 꺼져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

경쟁력은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경쟁력이 낮는데 국가경쟁력이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우리들의 어깨에 걸쳐 있습니다. 좀더 분발합시다.

2003년에는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2004년에는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수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했습니다. 우수한 혁신사례에 놀라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포상제도도 적용했습니다. 잘되겠구나 하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책품질관리, 홍보관리를 통하여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증명합시다.

혁신의 흐름을 정착시켜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성과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올해 초 목표관리방식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나갑시다. 그리하여 후배들에게 경쟁력 있는 제도를 물려주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의제관리, 문서관리, 과제관리, 기록관리 분야에서 모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머지않아 결과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동참하는 직장 내 혁신문화를 만드는 일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더 잘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러분 모두 모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봅시다. 노력하고 성공한 조직과 개인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